

〈서평〉

탐라어의 기원·계통에 관한 연구서

- 김공철의 『濟州方言의 源流: 耽羅語 研究』(1999, 한국문화사) -

강 영 봉*

이 책은 머리말에서 밝혔듯이 김공철 교수가 일찍이 간행했던 『方言學』(1977, 정향출판사)의 내용을 고쳐 쓰고, 나아가 현장의 지명 조사를 통하여 발굴한 탐라어와 신화·전설에서 추출된 탐라어 어휘를 考究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그는 탐라어와 주변 언어-특히 고대일본어와 아이누어-와의 비교 과정을 통해서 탐라어의 기원·계통 문제, 그리고 원시 내지 고대 한국어의 실상과 그 전파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이 책은 서론에 해당하는 〈1. 탐라어 연구의 뜻 2. 탐라어 연구의 범위, 3. 탐라어 연구 자료·방법〉과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4. 탐라어와 남방 언어, 5. 탐라어와 한반도 언어, 6. 탐라어와 아이누어, 7. 문헌과 현지 조사를 통한 탐라어의 발굴 사례〉 그리고, 결론인 〈8. 연구의 요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흥미를 끄는 부분이 바로 7장인 '문헌과 현지 조사를 통한 탐라어의 발굴 사례'이다. 이 장은 '탐라의 건국 신화·일본의 소위 神功王后의 新羅征討說話·州胡·毛羅와 耽羅·山名·地名'으로 구성되어 있어 세인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 저서를 통하여 우리들은 탐라어를 주변 언어와 비교하는 수고로움 때문에 제주어를 한결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는 평가를 내려도 좋을 것이다. 특히 남방 언어와의 비교, 한반도 언어와의 비교, 아이누어와의 비교를 통하여 문제가 되었던 어휘를 해결하고, 나아가 제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주어 어휘를 풍성하게 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그러하다. 다만 '너무 일본어 쪽에 기울어진 경향이 심하다'는 편향된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그가 지금까지 간행한 일련의 저서들-『일본어학개론』·『일본어문법론』·『일본어고전문법』·『일본어음운론』·『고대일본어문법의 연구』·『일본어어휘론』·『일어학개론』·『일어통사론』·『원시한일공통어의 연구』·『일어생성음운론』·『萬葉集と古代韓國語』·『아이누어研究』-을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그가 이 저서를 통하여 내린 결론은 “결국 탐라어의 언어는, 아득한 옛적 것은 알 수는 없어도 州胡의 칭호가 보이는 삼한 시대에는 마한의 언어와 좀 거리가 있는 언어가 쓰인 듯하다. 그 일부는 남방계의 언어일 수 있으나, 삼한의 前身인 辰의 언어가 많이 쓰인 것이 아닌가 싶다. 그것은 현재 문헌상 남아 있는 辰言 및 가지가 難解한 데 아이누어로 풀릴 가능성이 있고, 탐라의 언어도 지금까지 보아온 대로 아이누어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들은 辰言의 흔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辰의 後身인 辰韓에 고조선 遺民들이 살고 있었던 점에서 이들 언어는 古朝鮮語系로 볼 수 있다(349쪽).…격변기의 서기 기원 전후에는 북부계열 특히 고구려계의 언어가 밀려오기 시작하였다고 본다. 그 언어들도 辰言, 韓語들과는 근본은 같은 계열이었을 것이고 따라서 아이누어하고도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탐라어의 풀이에서 서로가 연관되면서 참여하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어도 관련되고 있으나, 비교 자료로 이용되는 일본어의 語形이 寄生모음이나 부가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점을 미루어 이는 辰言·韓語·고구려어 등의 원시한국어보다 한 단계 뒤진 딸 언어임을 알 수 있다. 탐라가 신라에 복속하고 中央 王朝가 신라-고려-이조로 바뀌면서 자연스레 그 공통어에 순화되면서 한편으로 지역적 특색이 보존되고 해서 제주 방언으로 이어져 왔다”(350쪽)는 것이다.

이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는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우리들은 그가 사용한 '탐라어'에 대한 개념의 문제다. 그는 2장

‘탐라어 연구의 범위’에서 “탐라어는 좁게는 탐라 건국으로부터 국명이 제주로 개칭되면서 고려 내지는 이조의 一郡縣으로 예측되기까지의 탐라에서 사용된 또는 사용되었으리라 믿어지는 一連의 언어를 지칭한다(16쪽).” 하고는 “횡적으로는 탐라 전역에서 사용된 언어, 그리고 縱적으로 탐라의 흥쇠, 服屬, 귀속에 따르는 고유어의 변천, 외래어의 현상 등을 모두 포괄하는 전 언어를 의미한다. 따라서 문헌에 정착된 채 사라져 버린 문헌어이거나 문헌에 정착되었으면서도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 그리고 당시의 언어로 소급, 추정할 수 있는 잔존어를 전부 그 속에 포괄한다”(16쪽)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넓게는 탐라의 명칭의 구애됨이 없이 탐라 건국 이전의 先史 시대, 州胡, 毛羅의 언어까지도 미친다”(16쪽)라 하고 있다. 탐라어 정의가 “전 언어를 포괄한다”라고 한다면 흔히 사용되는 ‘제주어’나 ‘제주방언’과 다를 바가 없어지고 만다. 책 제목에서는 〈제주방언의 원류〉로서 ‘탐라어’를 제시한 것으로 보이기 는 하지만, 굳이 ‘탐라어’라 쓴 확실한 이유가 묘연하다.

또 하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은, 비교 언어학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폭 넓은 식견과 기초 상식이다. 어떤 내용은 비교 언어학적 지식을 전제로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비약적인 상상력을 요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한 예로 ‘한라산’의 경우를 보자.

그는 『세종실록』과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오는 ‘頭無岳=圓山’을 『일본서기』의 내용을 그 준거로 하여 “頭無: 忱彌의 본뜻은 섬의 뜻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된다”(259쪽)면서 “섬을 뜻하는 덩(덩)이라는 音形이 본래의 ‘섬’이라는 뜻을 상실하고 이와 音形이 비슷하고 의미의 연상관계에 있는 圓이라는 뜻으로 전승되기도 하고 ‘頭’의 用字를 쓰기도 한 것으로 본다”(259쪽)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頭無岳=島山(島國)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頭無’에 대한 견해는 ‘뚝’ 또는 ‘두모/무’로 읽고, ‘圓’의 의미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 저서에서는 그 이전 단계인 ‘섬’[島]

을 상정하고 있으니 분명 조심할 일이다.

또 ‘漢擎山’에 대해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내용인 <한라산이 마치 雲漢(銀河 또는 하늘의 뜻)을 가히 끌어당길(擎引)만 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있게 되었다고 한다>에 이끌리어 “구름·하늘·끌리다”는 “묘하게도 아이누어 kur(u)라는 동일한 音形을 지닌다”(260쪽) 하여 “아이누어 kur(u)는 山·구름(雲)·끌어당기다(擎引)의 뜻을 지닌다.(260쪽) … 요컨대 한라산의 호칭은 본래는 山인 kur(u) 그리고 높은 곳(上·天)인 kan-na(k)(上水·神水)에서 유래했고, 나중에 山을 뜻하는 tar이 첨가되면서 *kara나라의 산(韓國山)을 거치고 어두의 k>h의 변음 과정에서 큰(나라의) 산, 하늘(높은 나라)의 산, 하나의(나라의, 諸國·諸山이 아니므로) 산이란 뜻으로 바뀌어 간 것으로 풀이된다”(262~3쪽)라 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h>k가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한다면, 그 반대인 k>h로의 변화는 주의를 요하는 내용이다.

나아가 한라산의 다른 표현들, 즉 『남사록』의 ‘擎峰’·‘擎岳’이라든가 『탐라지』의 ‘釜岳’이나 『신증동국여지승람』의 ‘圓嶠山’·‘瀛洲山’과도 연관하여 풀이하였다면 우리들의 고개를 절로 끄덕이게 만들었을 것이다.

누가 무어라 하더라도 제주어 연구를 심화시킨 것만은 분명하다. 이제 김공철 교수의 글을 인용하는 것으로 이 글을 갈음하려 한다. “탐라어의 연구의 자료적 제약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문헌상의 신화나 설화의 해석을 통하여 혹은 문헌 또는 口傳上의 지명이나 기타의 풀이과정을 통하여 탐라어를 추출하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고 또 그것을 주변 언어와의 대비를 통해서 그 실존을 확인한 것도 큰 뜻이 있다. 아이누어 관련 어휘와 고구려어계 어휘가 많이 추출됨으로써 이들 언어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다.”(351~2쪽)